

농약 범벅 “속 상하네”

중금속 함유된 중국차 ‘비류춘’ 적발에 차인들 “어디 이뿐이라” 반응



중국차에 대한 국내 차인들의 관심이 높음. 요즘 중국에서 중금속이나 공업용 색소가 함유된 녹차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돼 차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박재완 기자

수입차 안전인가?

농산물유통공사 2001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녹차는 총 239t. 그러나 박용구 교수(경북대 임학과)는 “현재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선 40%, 쿼터 초과 수입량은 50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유통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일본 여행객들이 구입해 들어오는 차도 적지 않은 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입 차에 대한 품질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 절차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명 ‘보따리 장사’ 등이 수입하는 차의 경우 안전성 검사는커녕 수입 후 보관상태조차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상표등록 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의 대부분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 중인 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고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폐기 및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알음알이로 유통되는 차의 경우다. 일명 ‘야생 차’를 채취해 차를 만들고, 이를 지인들끼리 나누어 마시는 것은 차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처럼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안전성 검사나 식품검사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곡천다원의 이호복 대표는 “최근 몇몇 다원들이 ‘유기농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 제도를 신청해 자발적으로 안전성 검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한다.

공인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돼야

수백만을 헤아리는 국내 차인들이 안심하

보따리 장사·무등록 농가 알음알이 유통 문제 안전검사 기관 설립 및 소비자 분별력 길러야

또한 낫을 자제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가공·판매할 경우, 낫이 ‘야재’로 분류돼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 차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공인 단체가 없는 현실에서, 여러 차 단계를 역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차인연합회 전우석 사무국장은 “차 관련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차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 차에 대해 규제할 법적 근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우리나라 차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차는 어떨까? 우리나라 차는 안전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우리 녹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시원장 김주희 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농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1~2번

고 차를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선 교수(성균관대 예절다도학과)는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 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 단체가 설립됨으로써 수입 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들이 믿고 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 상인이나 주위의 소문에만 의존해 차를 구입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품질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여행 시 공인된 차 판매장 이외의 곳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뛰어난 약리 효능으로 국민들의 ‘건강 파수꾼’으로 떠오르고 있는 차가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관계 당국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여수령 기자

조선시대 ⑧



유전강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83)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파고들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한자 학습교재나 사서류에까지 차에 관한 글들이 실린다. 주희에게서 주장되어 유교적 의례 속에 자리 잡은 차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차는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으니 이제까지는 주로 의약이나 건강을 위해 쓰이던 차가 제의 속으로 자리 잡게 되며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된다.

퇴계나 율곡 등의 대가들도 차를 즐겼으며, 가례(家禮)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등장했다. 선비들의 차는 공식적인 다례 이외에도 계획(契會) 등에서 사랑받았다. 선가(禪家)의 차생활도 융성하지는 못했으나 중

지였으며 다시 <음다(飲茶)>에는 당시의 음다풍속이 들어있다.

⑤ 이이(1536~1584): 율곡은 우참찬, 판돈령부사를 지냈으며 중국에 다녀와서 차를 더욱 애용했다. <격몽요결>에서 ‘유식(肉食) 후 진다(進茶)한다’고 기록했다.

⑥ 권문해가 쓴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사서다. 고려와 조선의 차 이름(儒茶, 智異茶, 曹溪茶, 腦原茶)이 나온다.

⑦ 사철의 정비와 승려의 환속이 국가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철의 차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⑧ 홍심(1504~1585): 명상(名相)으로 차를 즐겨 다시도 전한다.

⑨ 고염(1527~1603): 명대 희곡

의약, 건강에서 제의 속으로 자리잡아 퇴계, 율곡 등 대가들 가례 필수품으로

전대로 유지되었다.

중국을 계속해서 차인들이 차 이론서(茶理論書)를 쓰고, 자기문화(瓷器文化)도 의흥(宜興)을 중심으로 자사다기(紫沙茶器) 생산이 본격화되어 명장(名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① <훈몽자회>는 1527년 최세진이 만든 한자학서로, 3360여자의 훈(訓)과 간단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그 안에 차와 차그릇에 관한 글자가 여러군데 나온다.

② 이항(1478~1534): 호는 용재(容齋). 중국에 다녀온 차인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찬진했다.

③ 정관대사(1533~1609): 대둔사에서 일생을 보낸 다승(茶僧)으로 여러 편의 다시가 전한다.

④ 최연(1503~1549): 이조참판을

작가로 ‘존생팔전’을 썼으며 그 내용에 차에 관한 것이 여럿 나온다.

⑩ 허차서: 명대 차인으로 <다소(茶疏)> 4700여자를 써서 다학의 깊이를 더했다.

⑪ 호문환: <다집>을 쓰고 ‘고기구명(古器具名)’ 등을 남겼다.

⑫ 서발: <다고>에 무이차에 관해 쓰고, <채단명별기>에서 ‘명담(茗譚, 송대차)’에 관해 썼다.

정영: <다보>를 썼다.
왕문: ‘호구명왕기장도(虎丘茗碗旗圖)’가 있다.

풍사가: <다묵>을 썼다.
왕상진: <다보>와 <광군방보>를 썼다.

⑬ 시대빈: 명대 도공 시공의 아들 후에 의흥의 명장이 됐다.

⑭ 장경덕: <다경>을 남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⑧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1527 <훈몽자회(訓蒙字會)> ① 약방 설치(중추부)-약재목록 ② 구봉령(具鳳齡)이 <다경>을 읽다	1527 고염(高廉)의 출생 ⑤ ⑥ 허차서(許次)의 활동 ⑩ ⑦ 호문환(胡文煥)의 활동 ⑪ ⑧ 서발, 정영, 왕문, 풍사가, 왕상진 ⑫ ⑨ 시대빈(時大彬)의 활동 ⑬ 장경덕(張景德)의 활동 ⑭	리후(利休)가 어린나 이로 차 모임을 열다
1532 이항(李穡)의 귀양 ② 1533 정관대사(靜觀大師) 출생 ③ ④ 최연(崔演)의 다시 ④ 1536 이이(李爾)의 출생 ⑤ 1537 명의 사신이 오다 ⑥ <대동문부군록> ⑥ 1538 사철학파 ⑦ 1539 전라승려 3000을 군적에 올림 <신증동국여지승람> 찬진 ⑧ 홍심(洪審)의 활동 ⑧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을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 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을 불,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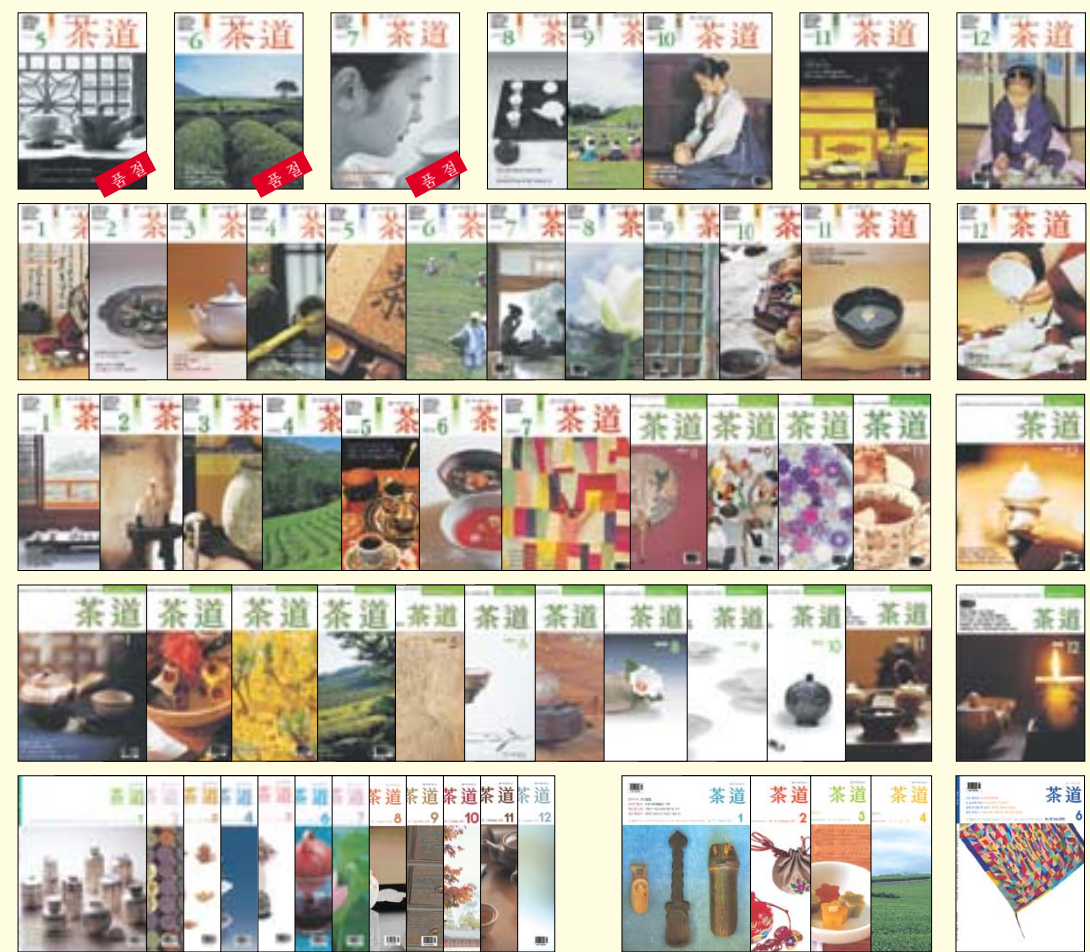
기성 괴선 자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해설집: 신국판 / 200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출판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